

강원 내일 기온↓...새해 1일까지 맹추위

등록 2012.12.29 18:01:28 | 수정 2016.12.28 01:46:03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29일 오후 3시30분을 기해 강원 철원·화천·양구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다.

오후 4시 관측 결과 철원과 춘천은 5.0cm, 0.8cm의 각각 적설량을 나타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30일 새벽까지 영서와 산간에 다소 많은 2.0~7.0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인다고 교통안전과 비닐하우스 붕괴 등 눈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동지방도 이날 밤에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눈은 30일 아침부터 점차 갠 것으로 보인다.

눈이 그치면서 기온은 푹 떨어져 매우 춥겠다.

30일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아 다시 추워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져 수도권 동파를 비롯한 시설물 관리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동 영하 3~영하 1도, 영서 영하 12~영하 6도, 산간(대관령-태백) 영하 8~영하 6도가 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영동 1~3도, 영서 영하 7~영하 4도, 산간 영하 7~영하 5도가 되겠다.

이번 추위는 내년 1일까지 이어지겠다고 강원기상청은 예보했다.

바다의 날씨는 너울성 물결이 높게 일어 낚시객이나 해안가 여행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30일은 오후부터 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어 1일 오전까지 파도가 높게 치겠다.

한편 울릉도 독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다. 30일은 오전에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나 눈이 오다가 오후에 점차 개겠다.

photo31@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